

논에서 시작된 밥 한 톨의 여정, 생명 품은 꽃의 기록

새로 나온 책

김혜형 산문집 '꽃이 밥이 되다' 출간



벼는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는다. 벌과 나비의 시선을 끌 필요 없이 바람을 타고 자가수분하는 까닭이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피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벼꽃은 외면당하기 쉽지만, 사실 그 어떤 꽃보다 특별하다. 사람을 먹고 살리는 ‘밥꽃’이기 때문이다. 이삭은 벼의 꽃다발이고, 그 속에 감춰진 벼꽃은 우리 밥상 위 쌀밥의 시작이자 생명의 출발점이다. 쌀 한 톨에는 벼씨가 견뎌낸 자연의 시간과 땀방울 속에서 풀과 싸워낸 농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농부의 시간으로 엮은 벼의 한살이

출판 편집자로 일하던 저자 김혜형의 산문집 ‘꽃이 밥이 되다’(목수책방)가 출간됐다. 벼를 따라가며 기록한 이 산문집은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밥’이 어떤 자연의 흐름과 인간의 손길 속에서 빚어지는지 섬세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자는 스스로를 ‘노동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라 말한다.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저자는 어느 날, 삶을 재배치하듯 몸을 흙으로 옮기기로 결심한다. 그 선택은 단발성 체험이 아닌, 20년을 이어온 농부의 삶으로 뿌리내렸다. 현재 그는 스물일곱 마지기 논을 일구며, 자연의 순리를 따라 흙일을 하고 글을 쓴다.



도시와 농촌, 일과 기록을 오가는 그의 삶은 긴 시간 쌓아올린 생활의 기록처럼 느껴진다. 벼씨가 잠에서 깨어 싹을 틔우고, 못자리를 거쳐 모내기를 지나 이삭을 맺기까지. 장마와 폭염, 병충해와 대풍을 견디며 결국 한 알의 쌀알로 여물어 밥상에 오르는 과정이 한 해의 사계와 맞물려 펼쳐진다. 책에는 농사일의 고단함도 숨김없이 담겼다. 저자는 농약과 제초제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은 풀을 다스리는 일이다.

하지만 그는 제초제를 뿌려 손쉽게 풀을 제거하기보다는, 땅에 잠시 밟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 “작물을 건강하게 키워서 우리와 연결된 이들을 먹이고 싶다”는 저자의 바람은 땀방울 아래서 허리를 굽히는 노동을 견디게 하는 이유다. 그러한 농사의 자리는 인간만이 주인이 아니다. 논둑의 청동오리 둥지, 거미줄에 맺힌 이슬, 고라니 발자국, 때로는 뱀뱀의 흔적까지,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감각이 글 곳곳에 묻어난다. 책 말미에는 추수 후 빈 논에서 풀벌들이 싹겨를 아금아금 퍼 나르는 장면이 등장한다. 추수가 끝난 들판에도 생명의 연속은 이같이 이어진다. 저자는 “이 책은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쌀밥의 서사이자 논물에 발을 담그고 사는 농부의 분투기”라며 “이 땅에서 앞서 살다 간 이들의 생명이 우리 몸으로 이어지고, 우리 눈에 번성했던 곡식의 생명이 우리 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청년여성 구직활동 분석...연령대별 맞춤 정책 제안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브리프’ 제74호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광주 지역 24~39세 미취업 청년여성의 구직활동 실태를 주제로 ‘젠더브리프’ 제74호를 발간했다. 이번 젠더브리프는 재단이 지난해 수행한 ‘광주지역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중 미취업 청년여성 집단에 대한 재분석 결과를 담아냈다. 특히 구직활동 경험과 경력단절, 직업교육훈련 실태를 연령대별로 구체화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여성들은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생활비 부족과 심리적 압박감, 자기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과 관련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력단절 문제가 두드러졌다. 최근 3년 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응답자는 약 40%로, 자격증 취득과 새로운 분야 학습을 주요 목적으로 꼽았다.



연령대별 구직 실태 분석에서는 ▲24~29세는 직업적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입직기 경력개발 지원 필요 ▲30~34세는 성차별 해소와 이·전직 지원이 요구되며, 타지역 취업 희망 비율이 높아 다양한 일자리 모델과 임금 개선 필요 ▲35~39세는 근로조건 미스매칭이 주요 구직 어려움으로 재취업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단은 ▲청년드림수당 자격 완화 및 현금성 지원 확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확대 개편, 유연한 일자리 모델 발굴 ▲전략산업 연계 직업교육훈련 개발 및 협의체 운영 ▲유연근무제·양육기 근무시간제 도입으

로 경력단절 예방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지역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사업체 취업 청년대상 문화상생카드 등 문화생활 지원을 통한 정주 여건 강화 ▲여성 유망기업 정보 확대 제공 ▲공공기관 인턴십 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로는 ▲성인지적 인사관리 매뉴얼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성차별 해소 ▲기업의 여성고용 확대 및 고용활당제 이행 강화를 포함했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청년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안정,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고용차별 개선과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정책 이슈에 주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여름 피치 스파클링=차정은 저자 문단보다 독자들이 먼저 알아본 시인 차정은 신간 ‘여름 피치 스파클링’으로 다시 우리에게 여름을 선사한다. 시인은 한낮의 땀방울, 습한 바람, 편의점의 차가운 탄산수, 콘서트 조명 아래 녹록하게 흔들리던 몸짓처럼 누구나 겪었을 법한 청춘의 장면을 이별 시집에서 선명하게 펼쳐 보인다. 동시에 여름이라는 한 시절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정히 안아준다. /다이스·1만2천원



▲우리가 모르는 낙원=박서영(무무) 저자 전작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에서 그림책 세계의 문을 열어줬던 무무 작가가 이번 책에서는 활짝 열린 문을 지나 더욱 웅성깊은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무무 작가는 낙원이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쓰지 않는 이야기 속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작가는 이야기들이 숨겨둔 비밀스러운 조각들을 섬세하고 촘촘하게 건져 올려 우리에게 건넨다. 우리는 이 이상하고 자유로운 이정표를 따라 자신만의 낙원을 꺼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오후의소요·1만8천원



▲미술, 마음, 뇌=에릭 캔널 지음, 이한음 옮김 미술 작품을 볼 때 우리는 종종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 하지만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는 복잡한 문제다. 세계적인 뇌과학자 에릭 캔널은 심리학과 생물학에 기반해 미술 감상의 과학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간의 학문적 여정에서 규명해온 관련 지식들을 망라해 간결하게 제시하는 한편, 이를 다양한 미술 작품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친숙하거나 낯선 감각들을 감상하는 가운데, 저자는 미술과 과학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왔는지에 줄곧 초점을 맞춘다. 추상 미술과 구상 미술의 차이는 물론, 조각과 회화의 대비를 통해서도 미술과 과학의 통섭을 시도한다. /프사케의숲·2만2천원



▲바당, 길을 걷다=이보경 저자 실제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산 지 10여 년이 됐다. 작은 그림책방을 하면서 제주를 찾아온 사람들,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며, 제주 사람이 돼 가고 있다. 겨울이 끝난 봄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봄은 태워가며 떠 있는 제주의 4월을 거쳐 미역이 밀려온 갯바위와 해변들의 모습, 밤바다에 떠 있는 한지잡이 불빛, 태풍이 지나간 바다의 모습 등을 하나씩 조망해 나간다. 제주 바당의 사계절을 돌아보는 이 그림책에서 화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주의 진솔한 모습을 그려 간다. /밝은미래·1만9천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 | | | | | |
|----------|----------------------|----------------------|---------------------|---------------------|---------------------|
| 시내
지국 | • 중앙지국 222-8171 | • 상무지국 453-2554 | • 유동지국 222-8171 | • 오치지국 261-9461 | |
| | • 산수지국 224-4188 | • 광천지국 374-2120 | • 운암지국 529-3548 | • 문흥지국 261-9462 | |
| | • 학운지국 673-6836 | • 진월지국 676-2726 | • 용봉지국 261-1503 | • 일곡지국 573-3200 | |
| | • 화정지국 372-9140 | • 봉선지국 673-6836 | • 신가지국 954-1420 | • 첨단지국 971-7374 | |
| | • 금호지국 376-7153 | • 백운지국 673-0123 | • 양산지국 574-3745 | • 치명지국 371-9584 | |
| 지방
지사 | • 동곡포지사 061)270-8689 | • 나주지사 061)335-0005 | • 보성지사 061)852-6644 | • 무안지사 061)453-3645 | |
| |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 광양지사 061)793-6800 | • 화순지사 061)373-7795 | • 함평지사 061)322-0882 | |
| | • 신안지사 061)980-8300 | • 구례지사 061)782-4696 | • 장흥지사 061)863-6800 | • 영광지사 061)353-5133 | |
| | • 순천지사 061)746-1600 | • 담양지사 061)383-5566 | • 강진지사 061)432-8899 | • 장성지사 061)394-3636 | |
| | • 여수지사 061)651-6433 | • 곡성지사 061)362-5746 | • 해남지사 061)535-5849 | • 완도지사 061)555-0134 | |
| | | • 농성지국 362-4102 | • 운남지국 952-1687 | • 광산지사 944-0993 | |
| | | • 목포지사 061)270-8689 | • 나주지사 061)335-0005 | • 보성지사 061)852-6644 | • 무안지사 061)453-3645 |
| | | • 동곡포지사 061)278-0740 | • 광양지사 061)793-6800 | • 화순지사 061)373-7795 | • 함평지사 061)322-0882 |
| | |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 구례지사 061)782-4696 | • 장흥지사 061)863-6800 | • 영광지사 061)353-5133 |
| | | • 신안지사 061)980-8300 | • 담양지사 061)383-5566 | • 강진지사 061)432-8899 | • 장성지사 061)394-3636 |
| | | • 순천지사 061)746-1600 | • 곡성지사 061)362-5746 | • 해남지사 061)535-5849 | • 완도지사 061)555-0134 |
| | | • 여수지사 061)651-6433 | • 고흥지사 061)832-6290 | • 영암지사 061)473-7151 | • 진도지사 061)542-4330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